

도서관을 소재로 한 유머(humor)의 사회학적 고찰

전 창 호*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4학년)

目 次

1. 들어가며
2. 도서관을 소재로 한 유머 분석
 - 1) 도서관 일반열람실을 배경으로 한 유머
 - 2) 도서관·사서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유머
 - 3) 도서관 이용 경험을 소재로 한 유머
 - 4) 도서관을 소재로 한 은어·속어
3. 맺으며

1. 들어가며

한 시대를 풍미하는 유머(humor; 우스갯소리)는 그 시대의 사회현상과 세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예전의 ‘참새 시리즈’, ‘전두환 시리즈’로부터 최근의 ‘최불암 시리즈’, ‘덩달이 시리즈’, ‘만득이 시리즈’에 이르기까지 한 시대를 대표하는 유머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유행이 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의 서정범 교수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유행하는 유머를 수집하여 “○○별곡”라는 제목의 단행본을 매년 발간하여, 유행어·속어와 유머를 통해 대학생의 의식구조와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작업을 이미 오래 전부터 해 오고 있다. 예컨대 ‘최불암 시리즈’의 유행은 그 시대의 현실적 부조리와 정치적 허무주

의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서관을 소재로 하거나 도서관이 배경으로 나오는 유머는 과연 도서관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을까? 이 글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문화적 형식으로 기능하고 있는 유머를 대상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인기(?)를 얻은 도서관 관련 유머를 통한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사회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2. 도서관을 소재로 한 유머 분석

최근 3년간의 인터넷과 PC통신망의 유머 게시판, 일간지와 스포츠신문, 각종 잡지의 유머란을 중심으로 도서관을 소재로 한 유머와 은어·속어를 수집하였으며 개인 면담과 유머 관련 단행본을 통해 보충 수집하였다.

수집된 유머의 대다수는 대학이나 대학도서관

* 글쓴이는 '98년 2월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졸업, 현재 부산여자전문대학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음.

을 중심으로 한 것들이었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볼 때에 유머는 역시 대학생들을 위주로 유통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본고는 대학생들의 의식세계를 주 대상으로 하는 한계를 가진다.

1) 도서관 일반열람실을 배경으로 한 유머

도서관을 소재로 한 유머들은 대부분이 자료실보다는 일반열람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도서관=공부방’이라는 부정할 수 없는 우리 나라 도서관문화의 현실은 도서관이 등장하는 유머 속에서도 어김없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겠다. 도서관 일반열람실에서, 즉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일상에서 일어난 재미있는 현상을 다룬 유머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도서관의 여러 유형들

코브라형 : 공부하는 척하다가 누가 지나가기만 하면 어김없이 고개를 칸막이 위로 빠끔히 쳐들고 그 사람을 쳐다본다.

슈퍼맨형 : 왼손을 베개삼고 오른손은 주먹을 불끈 쥐고 쪽 뺨으며 슈퍼맨이 날아가는 형으로 잠만 잔다.

두더지형 : 볼펜을 시도 때도 없이 떨어뜨리고는 반바지나 미니스커트 입은 여학생의 다리를 보기에 여념이 없다.

주물럭형 : 연인끼리 다정하게 앉아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상대의 몸을 주물르느라 정신이 없다.

폐쇄형 : 칸막이도 모자라 신문지로 칸을 막고는 3류소설, 만화, 잡지 등을 본다.

허무형 : 새벽 일찍 와 자리를 잡고는 잠만 자다가 가방 싸서 놀러 가거나 아침 먹으러 집에

간다.

귀신형 : 책만이 자리를 지킨다. 어디 가서 뭘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시계추형 :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반드시 일어나 휴게실, 화장실을 돌아다닌다.

부처형 : 진정으로 공부만 하는 드문 유형. 하지만 외모가 비교적 처지는 편이며 남녀 모두 엉덩이가 퍼졌다.

② 도서관에서

따사로운 봄볕이 사람을 악물리는 중간고사 기간이었다. 고등학교 선배인 박모씨가 투덜거리며 도서관으로 향했다. 자기 자리로 가는 중 한 아리따운 여학생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는 그녀의 등뒤로 돌아가선 두 손으로 그녀의 눈을 살며시 감싸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게?”

약간 놀란 듯한 그 여학생은 미소를 띠며 맞장구쳤다.

“아이 누구야? 모르겠는데?”

선배는 재차 물었다.

“누구게?”

“우혁이?”

“아니야”

“칠현이?”

“아니야”

“재원?”

“아니야”

“그럼 토니?”

“아니야”

“아~ 희준이?!”

“아니”

그 여학생은 말했다.

“그럼 도대체 누구데?”

선배는 말했다. 아주 당차게

“자리 주인!”

③ 도서관에서

한 캠퍼스 커플이 도서관에서 공부보다는 다른 일에 열중이었다. 손을 붙잡지를 않나, 부동켜안지를 않나,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장면까지 연출하고 있었다. 참다 못한 옆자리의 우락부락한 학생이 한마디했다.

“야! 도서관이 무슨 여관이나!”

그러자 그 학생 옆에 있던 다른 학생이 입가에 흐르는 침을 닦으며 일어나더니

“이씨, 도서관에서 잠도 못 자나?”

①의 경우는 도서관의 일반열람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을 행동 유형별로 재미있게 묘사하고 있으며 열람실은 공부만 하는 공간이라는 고정관념을 통렬하게 파괴하고 있다. 그리고 풍자의 이면에는 공부라는 억압된 틀에 갇혀진 우리 젊은이들의 아픔을 은유하고 있다.

②는 전형적인 기승전결의 구조를 가진 한편의 콩트로서 일반열람실의 부족으로 인한 좌석다툼을 이야기하고 있다.

③에서는 도서관 열람실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행해지는 요즘 젊은이들의 개방된 성 풍속도를 엿볼 수 있다. ‘여관’의 다의적 해석을 통해 웃음을 유도하고 있으나, 정작 ‘도서관’은 공부방으로 쉽게 규정해 버렸음을 볼 수 있다.

2) 도서관·사서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유머

도서관의 기능이나 사서의 고유한 업무를 다루고 있는 유머를 수집하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렇지만 수집된 유머 중에는 비교적 도서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들은 다수 있었다. 다만 아래의 유머들은 일반열람실을 소재로 한 것들에 비해 인지도가 매우 낮았다.

① 야한 도서를 분류하는데...

방학 동안 국회 도서관에 사서 보조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어떤 학생이 애매한 제목의 책을 집어들고 고민에 빠졌다. 책은 바로 ‘S?X에 대해 당신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이 책을 행동과학 서적으로 분류해야 할지 아니면 의학 서적으로 분류해야 할지 도무지 판단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

한참을 고민하던 학생은 지나가던 곰바우 사서에게 머뭇거리며 물었다.

“저어..이 책은 어디로 분류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제목을 훑어본 곰바우 사서가 별것 아니라는 듯 말했다.

“아 그 책요?...그냥 ‘가정생활 개선책’으로 분류해요!”

② 의사들의 대화

다섯 명의 의사들이 휴게실에서 앉아서 수술환자들에 대해 얘기를 나눈다.

첫 번째 의사: “환자 중에 회계사가 제일 쉬운 것 같아. 모든 기관에 숫자가 적혀 있더라고.”

두 번째 의사: “그래도 도서관 사서가 더 쉬운 것 같던데? 기관의 명칭대로 나열되어 있어서.”

세 번째 의사: “전기 기술자도 수술하기 쉽지, 신경하고 혈맥들이 색색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네 번째 의사: “아무래도 변호사보다 더 쉬울

까. 심장도 없지, 간도 없지....”

그러자 다섯 번째 의사 왈: “그래도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가장 부담이 없을걸? 그들은 아무리 수술을 잘못해 봐도 이해해 주더라고.”

③ 대학도서관에서

대학도서관에서 한 학생이 사서에게 물었다.

“우주 정복에 관련된 책들이 있는지요? 전 우주 비행사를 꿈꾸고 있거든요”

“네 있어요. 하지만 그 책들을 꺼내시고 싶거든 저기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셔야 할 것입니다. 저 위쪽에 꽂혀 있거든요”

“아! 안돼요, 절대 못합니다. 전 현기증이 유난히 심하거든요”

④ 짧은 독서

어느날 시립도서관에 어린 소년이 학교에서 읽으려고 한 도서의 목록을 들고 들어왔다. 그 소년은 사서에게 책을 찾아 달라고 부탁하며 이렇게 물었다.

“너무 긴 책이 아니라면 아무거나 좋아요”

그러자 사서가 웃으면서 말했다.

“네가 흥미를 느낄만한 책을 함께 찾아 보자꾸나”

두 사람은 그 도서목록을 하나씩 훑어 내려갔다. 소년은 계속해서 고개를 저었다. 마지막으로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는 어떨겠느냐고 묻자, 그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좋겠네요. 하루가 길어봤자 얼마나 길겠어요?”

⑤ 도서관과 노트북^{주)}

서초동 국립중앙도서관은 개가식으로 바뀐 후

로부터 열람객들의 노트와 필기도구를 제외한 개인 휴대품을 소지하고 자료실에 입장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었다.

하루는 한 학생이 Notebook 컴퓨터를 들고 열람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입구에 있던 사서가 이를 통제한다.

그 학생이 항의를 했다.

“이것은 저에게 Note나 다름 없대구요”

그러자 사서가 이렇게 말한다.

“제가 보기에는 Book에 더 가까운데요”

①은 성(性)을 주된 소재로 하고 있으나 사서의 분류 업무를 일반인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학생이 직접 자료를 분류한다는 비현실적인 설정은 조금 위험해 보인다.

②에서는 변호사와 프로그래머의 사회적 통념을 우회적으로 풍자하기 위해 여러 직업군을 비교하고 있다. 사서를 회계사나 전기기술자와 동등한 위치에 올려 놓고 있으나 자칫 사서는 단순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는 오해를 줄 소지가 없진 않다.

③에서의 소개는 ‘고소공포증이 있는 우주비행사 지망생’이라는 역설을 다루고 있지만, 상대로 등장하는 사서를 통해 친절한 참고사서의 상을 잘 나타내어 주고 있다 하겠다.

④에서도 역시 아동에게 독서지도를 하는 사서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요즘 학생들의 독서 기피증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주)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출입시 노트북 컴퓨터는 소지하고 출입하도록 하고 있다.(편집자)

⑤의 경우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Notebook'과 같은 합성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언어사회학적 커뮤니케이션의 장애 현상과 현대 사회의 아전인수(我田引水)식 개인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상으로 꾸며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글에서 이용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사서의 모습을 통해 단지 '책 지킴이'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3) 도서관 이용 경험을 소재로 한 유머

PC통신망의 게시판이나 인터넷의 뉴스그룹에 꼭 빠지지 않는 주제가 바로 '유머란'이다. 이 유머란에는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짤막한 유머들로 거의 채워져 있지만, 개인의 재미있었던 경험을 수필의 형식으로 쓴 유머들도 많다. 이러한 실화 유머들은 도서관이 등장하는 글도 다수 있으나 이들은 대체로 일반열람실이나 도서관 식당, 화장실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현재 대학도서관의 외부이용자 통제 정책을 소재로 하고 있는 아래의 글은 우리들에게 씩씩한 웃음을 짓게 만든다. 대학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능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현실에서 대학도서관의 외부인 통제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져 주고 있다.

제목 : 도서관 입구에서....

다른데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도서관은 지하철(4호선이하) 통과하는 곳이란 비슷하게 생겨서 학생증의 바코드로 확인을 하고 들어가

는 곳이다.

어느 날 선배가 도서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바코드 확인하는 곳이 하나인 입구에서 앞의 사람이 나오던 사람과 마주쳐서 들어가지도 않고 비켜서지도 않고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워낙 다른 사람에게 말을 잘 못 거는 성미라서 선배는 아무말도 못하고 서 있는데 2분이 넘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드디어 선배는 화가 났다. 그래서 앞사람한테 막 화를 내고 욕을 하고 해서 길을 비키게 했다. 그리고 꺼내 냈던 학생증을 확인하고 들어가려 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들어가지지가 않았다. 그러자 뒤의 사람이 툭툭 치며 선배의 학생증을 가리켰다.

그런데 거기에는...

학생증은 없고..웬 전화카드 한 장이....'

4) 도서관을 소재로 한 은어·속어

특히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널리 통용되는 은어(隱語)나 속어(俗語) 중에는 유난히 도서관과 관련된 단어들이다. 이러한 현상은 도서관이 이미 대학생들의 주요한 생활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과 관련된 은어나 속어는 대부분이 일반열람실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이는 자료실보다는 일반열람실 중심의 도서관 이용 행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도서관의 자료분실방지시스템(BDS)과 같은 생소한 이름의 시설물들은 은어로 대체·표현될 수 있는 소지가 농후하다 하겠으나 아직까지 그러한 은어가 출현하고 있지는 않다.

대학생들에게 널리 알려진 도서관 관련 은어 및 속어의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메뚜기: 도서관 일반열람실에 일찍 자리를 잡지 못해 빈 좌석을 왔다갔다하며 공부하는 학생

-D.D.T : 메뚜기가 자기 자리에 앉지 못하게 농약을 뿌리고(책 사전 등을 펴놓고) 불일 보러 가는 사람

-사마귀: 메뚜기를 잡아먹는 학생을 의미하며, 열람실에 들어서자마자 주위를 살핀 후 메뚜기인 것 같은 사람(흔히 메뚜기들은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자세로 앉아 있다)의 뒤에 가서 아무 말없이 가만히 서 있으면 불안한 메뚜기가 알아서 자리를 비켜 준다.

-두꺼비: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메뚜기가 한 자리에 눌러 앉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이들을 두꺼비라 한다. 두꺼비는 자리 주인이 돌아와 비켜 줄 것을 요구해도 얼굴에 첩판을 깔 채 '마냥 눈만 깜빡'이면서 자리를 떠날 줄 모른다는 것. 대부분 여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 수법은 남학생에게는 비교적 잘 통한다고 한다.

-도마뱀: 아침 일찍부터 열람실에 자리를 잡았지만 공부에 별 뜻이 없이 책을 펴놓은 채 목만 길게 빼고 책상 너머로 지나가는 학생이나 마음에 있는 이성 친구의 동정을 살피는 일에 열중한다. '거북이' 혹은 '코브라'라고도 한다.

-시베리아: 열람실에서 칸막이가 없고 뺑뺑이 자리를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

-밥상: 칸막이가 없는 책상

-도자기: '도서관 자리 잡아 주기'의 준말로, 남을 대신하여 열람실 좌석을 맡아 주는 행위

혹은 사람을 뜻한다.

3. 맺으며

이상에서의와 같이, 도서관을 소재로 한 유머나 은어·속어들 중에서는 널리 알려진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일반열람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직도 우리 나라에서는 도서관이 공부방 이상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이 글을 쓰며 필자는 한가지 의문을 품게 되었다. '덩달이 시리즈'나 '만득이 시리즈'나 꽤 많은데, 왜 '도서관 시리즈'는 없는 것일까? 그러나 이 의문은 아주 간단하게 풀리게 되었다. 왜냐하면, 도서관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중심에서 있지 않고 계속 주변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흔히들 이용자가 오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이용자에게 다가가는 도서관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대중들에게 재미있는 도서관 유머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도 도서관을 보다 친숙하게 만드는 하나의 전술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지나친 발상일까?

도서관문화 편집위원회 귀중

졸업하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도서관문화와 같은 매체에 과연 학부생이 글을 기고할 수 있을까를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도서관문화를 즐겨 보는 한 사람으로서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래도 도서관계가 조금 보수적이다보니, 대학원생이나 학부생에게까지 지면을 할애해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었죠. (학부생에게 개방을 하고 있으나 기고하는 사람이 없어서 실지 않거나, 혹은 기고하는 학부생은 있되 글의 내용이 부족해서 실지 않았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수님들의 논문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떠올리면 어느 정도 상상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나라에서 학부생이나 석사과정 대학원생들이 기성 매체에 글을 발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보수성을 보이는 곳이 바로 도서관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부생들도 할 말이 많습니다.

저는 석사과정을 수료하신 분이나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서들보다 더 예리한 통찰력을 가진 학부생들도 꽤 있다고 봅니다. 물론 대부분의 학부생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학부생들의 기발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공식적으로 발표될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위의 몇몇 사람들에게 입으로 전달되다가 결국은 사장되고 맙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몇 퍼센트의 범주에 포함될지 모르는 뛰어난 학부생이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 글을 읽어 보면 아시겠지만). 다만 저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학부생의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한달 앞두고-학부생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시점에서-부라부라 급하게 엉뚱한 글을 하나 써 보았습니다. 학부생다운 경박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글은 연구자가 쓰는 것’, 그리고 ‘글은 학술적이어야 한다’라는 두가지의 고정관념 혹은 선입견을 깨뜨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제 글이 실리든 안 실리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학부생이 도서관문화에 글을 기고했다는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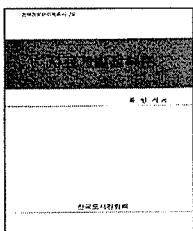
무례하였다면 학생의 치기어린 행동으로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창호 올림

한 | 국 | 도 | 서 | 관 | 협 | 회 | 신 | 간 | 안 | 내

【자료개발정책론】 현대정보관리학총서29, 류인석 저, 200쪽, 정가 10,000원(회원보급가 8,000원), ISBN 89-7678-035-5

— 주요 목차 —



- | | |
|--|---|
| <p>제1장 자료개발정책론</p> <p>1.2. 자료개발 발전과정</p> <p>1.3. 자료개발정책</p> <p>1.4. 자료개발 현황분석</p> <p>1.5. 자료개발정책 지침작성</p> <p>제2장 자료예산 배당론</p> <p>2.2 자료예산 배당이론</p> <p>2.3 자료예산배당 절차와 방법</p> <p>2.4 자료예산배당 현황분석</p> | <p>제3장 자료평가론</p> <p>3.2 자료평가 의의와 목적</p> <p>3.3 자료평가 방법</p> <p>3.4 자료이용 분석현황</p> <p>제4장 자료폐기론</p> <p>4.2 자료폐기이론</p> <p>4.3 자료폐기 변수 및 기준</p> <p>4.4 자료폐기 현황분석</p> |
|--|---|